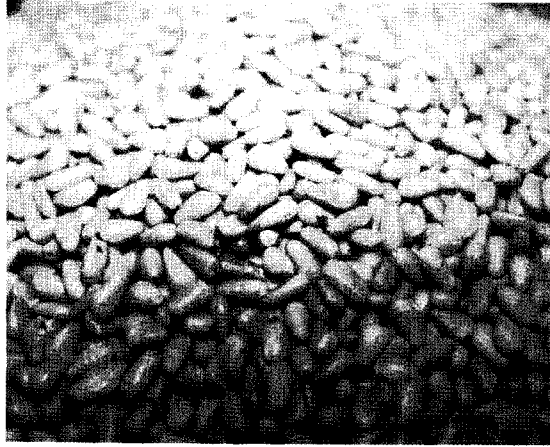


산림청, '홍천잣' 지리적표시 등록 완료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11월 17일자로 '홍천잣'을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최종 등록 공고하고 등록법인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홍보 등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홍천군의 대표 특산물이었던 '잣'은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산업화 기반과 함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법(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등록된 홍천잣의 경우 '08년 12월 12일에 등록 신청을 한 후 1, 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품의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26호로 등록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임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발굴, 확대를 통해 임산물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명품·브랜드화로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山林**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박영환 사무관(042-481-4206)